

불교계 힘모아 아시아 문화축제 연다

금산사·마주협 등 10월 18일 전주서 개최

국내 체류 이주민이 1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교계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아시아문화축제를 연다.

아시아문화축제 '다꿈어울림한마당' 조직위원회(위원장 성우·경우·진오)는 10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아시아문화축제 '다꿈어울림한마당'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문화축제는 그동안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가 진행해오던 다문화축제를 전국단위로 확장한 것으로 호남불교계가 주축이 돼 개최하게 된다.

축제에는 착한 벼들, 광주외국인인력지원센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 지구촌공동체 등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며 네 팔, 소리랑가,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9개국 이주민 2000여 명이 참가한다.

'화합을 넘어 융합으로'라는 주제로 열

리는 이번 아시아 문화축제에는 전통과 문화로서 한국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동아시아 불교의 다양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각국의 불교문화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 한국의 사찰음식을 비롯해 아시아 참가국들의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한지를 이용한 한국전통의상과 아시아 각국 의상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밖에 외국인 법당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과 종교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이주민들이 한국불자들과 함께 경기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배구대회와 게임이 즐기는 명랑운동회,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이번 아시아문화축제는 지난 2008년부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수도권에서 개최해왔으나 올해부터 서울이 주도해 전주에서 개최하게 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아시아 문화축제는 이주민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로 진행된다"며 "불교가 이주민 복지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불교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주요인사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행정, 정치, 시민사회에 대한 전북불교계의 역량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 불자의 자긍심과 단합을 촉진하여 전북 불교계의 변화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부모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금산사(주지 성우)와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8월 13~14일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가 참여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가족, 사랑, 소통'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7명과 보호자가 참여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은 숲속 걷기 명상, 가족과의 대화, 나를 깨우는 108염주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한 참가 청소년은 "고요하고 차분하게 보낸 하루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사업인 템플스테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성을 순화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 하계수련회

전주 우리는선우(회장 김진철)와 전북 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박인순)는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 소년원) 불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8월 10~11일 열린 이번 하계수련회에서는 풍선아트와 전통놀이 체험과 명상 체조, 찬불가 배우기, SATI 수행법 배우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 학생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실수 안하고 잘 지내고 싶다"며 "사회에 나가면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에서 배운 미용기술을 살려서 미용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 배월희 선생님은 "불교 수련회를 통해 상처투성이인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내내 긍정의 에너지로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정사 "각종 규제 올림픽특구 포기"

정부 상대 '의궤' 반환 서명 운동도 전개

평창 오대산 월정사 일대의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특구 건폐율 등 제한조치에 강원도와 평창 월정사가 반발하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강원도와 함께 일반사업으로 기존 특구 개발 계획인 '자연 명상마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지정 권한을 가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8월 23일 동계올림픽특구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강

원도가 제출한 건폐율 30%가 15% 이하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월정사는 강원도와 특구 지정 후 자연생태 역사·문화자원과 명상을 융합한 마을을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힐링 명상'로 가꿀 계획을 수립했다. 월정사-상원사 구간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친환경적 운송수단을 활용하며, 일대를 재 정비해 청정지구로 변모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도위 특구안으로 자연·명상타운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다. 건물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관련 시설 건립이 불투명해졌다. 중도위의 특구안에 따르면 자연 명상·문화체험지구 기반시설인 대형주차장 건설도 불가능하다. 월정사와 강원도 측은 당초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며 주변 기존 상가건물을 정비하고 문화체험지구를 집적화하려 했다.

월정사 주지 정남 스님은 "독일올림픽위원회가 오대산 자연 명상·문화체험지구를 올림픽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자연명상·문화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특구 지정보다는 도와 함께 원래 계획대로 지구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구 취소 후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면 개별 중앙부처를 상대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착공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월정사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입구에서 오대산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찾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특별전이 끝나는 31일까지 지속된다.

월정사 측은 "원래 월정사에 있던 소중한 문화재가 102년 만에 돌아왔지만 전시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유산을 기치로 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의궤가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월정사 봉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항사 석가여래삼불좌상 전남문화재 지정

전남 해남군은 미항사와 약수사 유물 4건이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8월 13일 밝혔다.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22호로 지정된 해남 약수사 불교전적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보살만행수능엄경 권1~4(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一~四)' 등 7책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중 희귀본 불서로 문헌학적으로나 불교사상사적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임을 인정받았다.

제323호 해남 미항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대응전에 봉안된 목조 삼존불로

조선 후기 17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불상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제324호 해남 미항사 목조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일괄은 조선 후기 제작된 지장보살상을 비롯해 시왕, 판관, 녹사 등 36구의 조각상(명부전 봉안)으로 17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제325호 해남 미항사 목조 석가여래삼존상과 나한상 일괄은 조선 후기 제작된 석가여래삼존상과 심유나한상을 비롯한 26구의 조각상(응진당 봉안)으로 18세기 중

엽을 대표할만한 상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남군은 국가지정문화재 35점,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42점 등 총 77점을 보유하게 됐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신규 자원 발굴과 지정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산재한 불교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323호 해남 미항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

참좋은 우리절, 청소년 심리치유 캠프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참좋은우리절에서 단조로운 학교생활과 임시 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심리치유캠프'를 진행했다.

이날 캠프에서는 진로상담 전문교사인 정수홍 씨가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선택을 위한 상담을 진행해 청소년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좋은우리절 명상나눔단 지도법사 무근스님은 "내년부터는 청소년심리치유캠프에서 얻은 여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인성프로그램과 접목하여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 청소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동구 태고종 보현사 개원

광주 구도심인 동구지역에 포교당이 개원했다. 태고종 보현사(주지 법정)는 8월 18일 동구 지산동에 법당과 요사공간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태고종 중정 혜초 스님, 선암사 회주 금용 스님, 주지 설운 스님, 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보용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도량을 훌륭히 만드는 것은 참여대중이 성심을 다해 삼보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라며 "부처님의 집을 짓거나, 시주하는 공덕이야말로 중생이 쌓을 수 있는 공덕 중 가장 수승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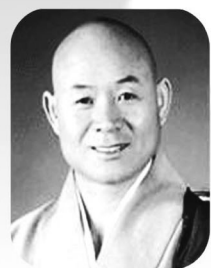
법어에 앞서 주지 법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도량을 만드는데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이 가득한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한 보현사는 무등산자락의 시작하는 주택지역으로 대지 100여 평에 30평의 철구조물조립식 형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에서 칙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① 초6년 - 고3 재학
 - ②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① 특차모집

| 학과 | 학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4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 석사과정 | 3년 | 10명 |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

②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④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 2015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⑤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 팩스 :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중의대 칙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